

실패박람회 전주서 개최 실패는 자본, 새로운 도전으로

내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옥마을에서 26일까지 행사 일환 '실패사례 공모전'

전주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과 극복사례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실패를 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실패박람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2019 실패박람회 in 전주' 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시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과 극복사례를 수집하는 '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9 실패박람회 in 전주'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실패는 두 번째 기회'를 슬로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019 실패박람회 in 전주는 크게 △국민 속의 토론 △실패사례 공모전 △재도전 정책마당으로 나뉘며 진행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문화 공연도 준비된다.

먼저, 실패경험 토론탄 3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속의 토론은 '문화예술 관련 실패'를 핵심주제로 12개 분야 60개 그룹의 3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실패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시는 국민속의 토론을 실패를 겪은 예술인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를, 새로이 시작하는 예술인들에게는 기존의 실패경험을 자산삼아 성공의 기회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패사례 공모전'의 경우 자신의 특별한 실패사례 및 극복 후기를 공유하고 싶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제출한 공모수기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시상금 300만원이 수여되고,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개막식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우수상 2명과 장려상 3명에게도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실패사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패박람회가 열리는 3일간 전주 중남문 광장에서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주시 소재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정책마당'도 펼쳐진다. 정책마당은 실패박람회에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재도전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과 채무, 대학진학, 저소득일자리, 경력단절 등의 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에 마련되는 박람회 주 무대에서는 실패박람회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직접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해 박람회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예술성을 살린 명창 공연과 판소리,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실패박람회가 실패를 겪은 전주 시민에게는 용기를 주고 재도전의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고, 전주 시민의 재도전을 지원하고 실패의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실패박람회는 올해 전주를 비롯해 강원과 대전, 대구 등 4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이번 실패박람회를 준비하게 됐다. /송효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전주시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막바지에 접어든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의료시설인 다성행방 병원을 찾아 시설물 안전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재난취약시설인 다중이용업소와 급경사지 등 400여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김 시장은 또 올해 합동점검에 각 분야 민간합동기동반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용머리 여의주 마을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이곳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11일 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서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과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주민협의체 위원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도의 마을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현장지원센터는 사업구역 내 빈 점포로 있던 옛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향후 이경진 현장지원센터장을 비롯한 4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된다. 또,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주택재개발 해제지역 정주여건 개선

전주시, 올 하반기 태평2·다가지역 뉴딜사업 공모 도전

전주시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폐가가 밀집된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태평2·다가지역(완산구 태평동 145번지 일원, 12만6,400㎡)을 대상으로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예정) 정비 구역에서 해제된 태평2·다가지역은 폐가가 밀집해 있고 기초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주민이 수립한 중앙동 마을계획과 상인이 수립한 세대공감 다가동 계획을 토대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으로 발전시켜왔다.

시는 해당 지역에 잠재된 △공구거리로 대표되는 요리·공구기술 등의

인적자원 △사람들이 몰리는 객리단길(객사길)의 새로운 에너지 △전주천과 화산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강점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 유입과 신규 창업 정착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근 재개발 지역과의 대비에서 오는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활성화계획안에 담아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달에는 29일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9일에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모 신청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어린이집 연합회 이경진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지정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 5500여개소 어린이집 4천여명의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홍보하며 범시민3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 열망 '가득'

탄소융합기술원·새마을회원·평생학습기관, 지원 사격 나서

전주지역 탄소기업과 평생학습기관, 새마을회원들이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 원장 방운혁)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기술원 임직원들과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100여명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북발전을 이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협회

회도 지난 10일 오후 2시 창업보육센터에서 진행된 정기 간담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3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장성원)와 전주시새마을협의회(회장 김진용), 전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이) 등 새마을회원들도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여 일 동안 인후동 안골광장에서 10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인후동 안골광장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 부스를 운영

한다.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과 전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덕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20여개 평생학습기관은 지난 10일 전주시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열린 평생학습기관장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시는 5월 3일까지 한 달간 시민 30만명 서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협회비 8억 횡령' 도내 장애인협회 회장 구속

수억 원의 장애인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협회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을 가로

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협회는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말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 30대 남성 징역 18년

결혼을 반대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빨래통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모(3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경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모(6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던 B씨와 딸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